

트렌디함을 더하다 성북현대오일뱅크

울긋불긋 오색 단풍이 절정인 10월의 어느 날,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성북현대오일뱅크를
찾았다. 최근 노후화된 세차기를 교체하고 무인
키오스크 솜까지 오픈하며 말끔하게 변신한
성북현대오일뱅크를 소개한다.

글 홍보팀 사진 류창렬





1

도약하는 주유소

성북현대오일뱅크는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타운 지역에 자리해 안정적 수익 창출과 개발 잠재력이 크다.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고급 승용차를 이용하는 중년 고객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성북현대오일뱅크는 최근 셀프 주유소로 전환했지만, 주 고객층의 연령대를 고려해 주유 인적 서비스도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고객의 요청에 즉시 응답할 수 있게 매 순간 주의를 기울이고, 노후화된 세차기를 교체하고 무인 키오스크 솥까지 오픈하는 등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유통 플랫폼을 갖추다

최근 성북현대오일뱅크에 국내 첫 완전 무인 주유소 편의점이 오픈했다. 주유소 내부 공간을 활용하고 언택트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무인 편의점이다. 일반 자판기와 달리 고도화된 SI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 키오스크에 카드를 꽂으면 문이 열리고 상품을 꺼내면 자동으로 결제된다. 모바일 성인 인증 후 주류와 담배 구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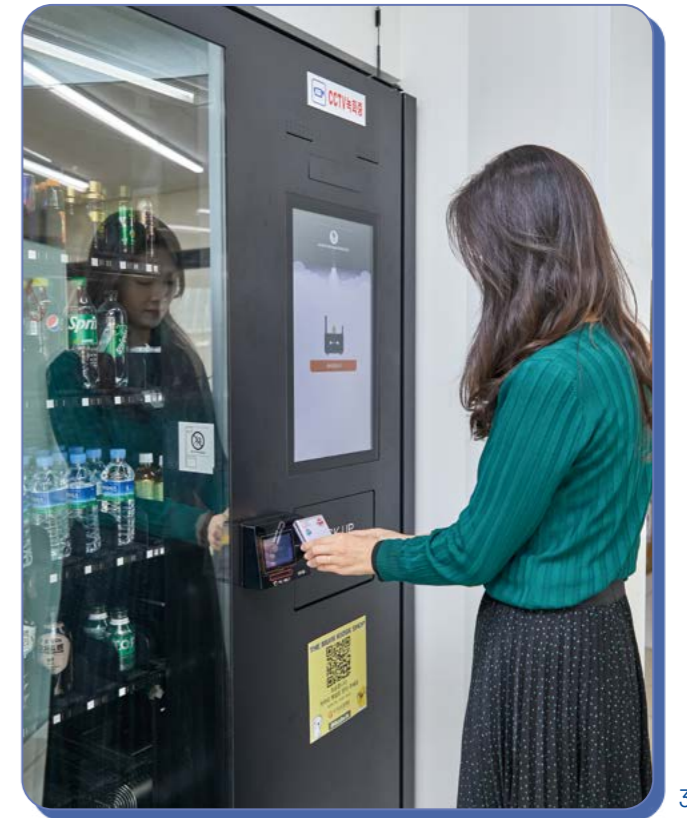
가능한 것도 차별화된 점이다. 성인 인증을 한 번 해주면 재인증 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오픈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방문 고객을 중심으로 키오스크 솥에 대한 문의가 많다. 수시로 무인 키오스크 솥 제품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이라니 더 많은 고객 방문을 기대해본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김성기 대표는 주유소 운영에 있어 회사 규정 준수에 가장 힘쓰고 있다. 사업장 운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며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한다고 전한다. 그뿐 아니라 본사에 준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는 김 대표는 근로자의날이나 명절 연휴 등에 직원이 쉬 수 있게 하는 등 직원 복지에도 적극적이다. 주유소 신규 개발, 소매 영업 그리고 주유소 운영 등 주유업계에서 30여 년간 활약해온 베테랑 김 대표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앞으로의 멋진 동행이 그려졌다.



2



3

- 1 성북현대오일뱅크에 오픈한 국내 최초의 완전 무인 주유소 편의점.
- 2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김성기 대표(가운데)와 직원들.
- 3 무인 키오스크 솥의 자판기는 고도화된 SI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
- 4,5 고객의 요청에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노후화된 시설 교체, 근무환경 개선 등 고객과 직원 모두가 행복한 주유소를 지향하는 성북현대오일뱅크.



4



5